

# 제주 무속신화에 나타난 이중의 외부성과 젠더의 얽힘\*

조현설\*\*

## <차례>

1. 문제제기
2. 송당계 본풀이와 이중의 외부성
3. 이중의 외부성과 젠더의 얽힘
4. 맺음말-논의의 확장 가능성

## <국문초록>

제주 신화의 의미를 여는 두 개의 키워드는 이중의 외부성과 젠더이다. 제주 신화의 뿌리인 송당본풀이를 보면 부부관계를 맺는 남신 소천국은 토착적 수렵신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여신 백जू도는 외래적 농경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양자 가운데 행동양식에 있어 우월한 지위에 있는 존재는 백जू도이다. 이는 제주 신화가 외래자를 우위에 두는 사유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런데 세화분향당본풀이를 보면 백जू도와는 다른 외래자가 등장한다. 서울에서 태어난 금상은 국가를 위협하는 역적(혹은 천하명장)의 이미지를 지닌 존재로 제주도를 피난처로 삼아 도래한다. 이처럼 제주신화는 백जू도로 표상되는 농경문화, 금상으

\* 이 논문은 이화여자대학교 탈경계 인문학 연구단 제1회 학술대회(<탈경계 인문학과 젠더 연구>, 2008년 5월 22일)에서 발표한 논문 「신화를 통해 읽는 젠더 무의식-제주 신화에 보이는 이중의 외부성과 젠더의 얽힘을 중심으로」를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혀 둔다.

\*\* 서울대학교 국문과

로 표상되는 군사(혹은 국가)문화라는 이중의 외부성을 특징으로 지니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이중의 외부성은 젠더와 얽혀 있어 더 문제적이다. 농경문화와 수렵문화의 결합인 백जू도와 소천국의 결혼관계에서 양자는 대등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백जू도가 주도적이다. 하지만 백जू도와 금상의 결합 양상은 사뭇 다르다. 송당계본풀이인 <세화본향당본풀이>의 백जू도는 육식을 하는 소천국은 거부하지만 같은 육식을 하는 외래자 금상은 자신의 식성을 유보하면서까지 받아들인다. 이 수용의 과정은 여신 백जू도의 젠더가 재조정되는 과정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백जू도는 본래 지니고 있던 주체적 형상을 완전히 상실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타자의 처지에서 금상을 포용하여 함께 좌정하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백जू도의 형상은 일반신본풀이인 <세경본풀이>의 자칭비를 통해 재현된다.

핵심어 : 이중의 외부성, 젠더, 제주신화, 농경문화, 수렵문화, 군사문화, 송당본풀이, 세화본향당본풀이

## 1. 문제제기

‘외부’는 제주도 신화의 의미를 여는 열쇠말 중의 하나이다. 제주 신화의 신들은 탐라국 건국신화의 세 시조처럼 제주 땅에서 솟아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외부에서 도래한다. 주지하듯이 탐라국 건국신화의 주역인 고을나·양을나·부을나의 배필인 벽랑국(혹은 일본국)의 세 공주는 곡물의 종자를 지참하고 바다를 건너온다. 송당본향당, 칠머리당, 서귀포동홍본향당의 당신(堂神)들도 이국(異國)에서 도래한다. 이국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건너오는 경우도 있는데 구슬할망당, 토산알당, 윤동지영감당, 도순본향당, 동복본향당, 삼달본향당의 당신이 그

런 사례이다. 외부는 비현실적 공간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눈미 불돛당, 용강본향당, 각시당, 오드싱본향당의 당신은 하늘에서 내려오고, 신촌리일렛당의 당신은 용궁에서 올라온다. 이들 외래 신격들의 본적은 제주도 신화와 문화의 복합적 성격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징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외부성은 단지 신격의 본적 문제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외부성은 외부자에 대한 인식, 외부자의 문화적 성격에 대한 인식의 문제이다. 다시 말해 벽랑국의 세 공주가 벽랑국으로부터 도래했다는 사실 보다는 곡물의 종자를 가지고 왕비가 되기 위해 왔다는 발화(發話)가 외부성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긴요한 대목은 제주 신화의 외부성이 단일하지 않다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세화본향당본풀이>에 등장하는 ‘금상장수’는 서울 남산 아양동출에서 솟아난 거인으로 천하명장의 형상을 지닌 인물이다. 왕성(王城)을 굽어보는 자리에서 천하명장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역적이 될 수밖에 없는 인물이다. 그래서 서울을 떠나지 않을 수 없게 된 금상장수는 군사를 거느린 무장(武將)의 형상으로 제주에 입도한다. 세 공주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셈이다. 금상장수는 곡물과 같은 생산양식의 표상이 아니라 영웅적인 힘의 표상으로 도래한다.

그런데 제주 신화에 두드러진 이중의 외부성은 젠더(Gender) 문제와 얽혀 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적이다. <세화본향당본풀이>의 백주아기는 <송당본풀이>의 백죽도와는 달리 이미 백록담에서 솟아난 천자또의 손녀, 서울 서대문 밖 대밭에서 솟아난 임정승의 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데, 소천국과의 결합에는 실패하고 금상장수와 결합에는 성공한다. 이 결합의 성패는 표면상으로는 육식, 채식, 잡식이라는 식성의 적부(適否)가 결정하지만 이면에 가려져 있는 성패의 결정 요인은 백주아기의 젠더일 수 있다고 본다. 왜 백주아기는 소천국은 거부하면서 금상장수는, 자신의 식성 곧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조정하면서까지 받아들이는가? 이는 문화적 무의식을 통해 구성된 백주

아기의 젠더 문제를 풀어야 풀리는, 제주 신화의 핵심, 신화적 비유가 허락된다면 제주 신화의 ‘서천꽃밭’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그간 제주 신화에 대한 연구가 적지 않게 누적되고 심화되어 왔다. 그리고 제주 신화 연구의 선편을 잡은 장주근, 현용준 이래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동의하는 바는 제주 신화의 문면에 드러나듯이 신격들이 토착성과 외래성의 표지, 수렵 혹은 농경문화 표지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었다.<sup>1)</sup> 최근에 와서는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제주 신화의 여신과 여성의 삶의 관계가 탐색되기도 했다.<sup>2)</sup> 하지만 외래자의 성격을 이중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시각, 나아가 그것이 젠더 문제와 얽혀 있는 양상을 복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시각은 제기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에서 이중의 외부성과 젠더라는 두 개의 키워드를 통해 제주 신화, 특히 송당계본풀이를 새롭게 읽어보려고 한다.

## 2. 송당계 본풀이와 이중의 외부성

제주 심방들은 북제주군 구좌읍 송당리에 있는 송당(松堂)을 제주도 당의 ‘불회궁’이라고 한다. 제주 신당의 뿌리가 되는 곳이라는 뜻이다. 신화에 따르면 남신 소천국과 여신 금백주의 결혼으로 태어난 아들 18, 딸 28, 손자 78명 등 일가 친족 378명이 제주 곳곳의 당신으로 들어가 좌정해 있다고 이야기한다.<sup>3)</sup> 비록 심방들 가운데 이 계보를 제대로 말

1) 초기 논의는 현용준의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장주근의 『한국신화의 민속학적 연구』, 집문당, 1995 참조.

2) 좌혜경, 「자청비, 문화적 여성영웅에 대한 이미지」, 『한국민속학』 30집, 한국민속학회, 1998.

차옥승, 「제주도 신화와 제주도 여성의 삶」, 『종교연구』 49집, 한국종교학회, 2007.

3) 현용준,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87면

하는 이는 없지만 이런 심방들의 인식에는 송당을 중심으로 한 송당계 신화가 제주 당신화의 골간을 이룬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다. 제주 신화의 ‘불회공’을 석명하려면 송당계 당신본풀이를 풀어야 한다.

송당계본풀이는 남신인 소천국과 여신인 금백주의 만남과 분리를 중심으로 이뤄진 송당리 본향당 본풀이, 소천국과 금백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케네깃도가 주인공인 김녕리 케네깃당 유형의 본풀이, 소천국이 아닌 제3의 남신인 금상이 등장하여 금백주와 결연을 맺는 세화리 본향당 유형의 본풀이로 나뉜다.<sup>4)</sup> 후자의 두 유형은 새로 당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송당 본향당 본풀이를 바탕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인데 두 유형의 신화에 보이는 변형과 증식을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유형의 자료들은 제주 신화의 이중의 외부성을 밝히는 핵심 자료이기 때문이다.

먼저 <송당본풀이>의 본래 면모를 잘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고대중 본<sup>5)</sup>을 바탕으로 이본들을 참조하여 서사단락을 요약하면 다

4) 송당계본풀이의 유형과 관련하여 근래 김진하(김진하, 앞의 논문, 233면)는 송당계본풀이가 1차 신화(소천국과 금백조의 만남과 헤어짐), 2차 신화(아들신의 탄생과 축출-문곡성의 신화), 3차 신화(머느리 신의 탄생-서당신화와와의 결합), 4차 신화(송당 신화의 변이와 차용-세화 본향 신화)로 분화된다고 도식화한 바 있다. 필자가 제시한 세 유형과 일치하지만 김진하가 3차 신화라고 한 것은 필자가 정리한 유형에서 제외되어 있다. 김진하가 3차 신화라고 한 것은 주로 일렛당 계열의 신화를 말하는데 소천국과 금백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의 배우자에 대한 본풀이이다. 그런데 이 유형의 신화는 계보를 송당과 연결시키기는 하지만 여성 쪽이 육식을 해서 부부가 분리되거나 처침갈등의 형식을 띄고 있어 송당계 신화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강정식도 이런 유형의 자료를 송당계에 서 분리해서 한라산계로 따로 분류한 것으로 판단된다(강정식, 앞의 논문 3장 1절 참조). 송당계본풀이의 분화나 계보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이 논문에서는 일단 세 유형에만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5) 송당본풀이는 현재까지 채록되어 공개된 자료 가운데 서사성을 갖추었거나 계보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7개 정도이다. 이들 가운데 서사성이 풍부한 자료는 1960년대에 진성기에 의해 채록된 이상문 본, 고대중 본, 1967년 장주근이 채록한 고봉선 본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송당본향당의 메인심방이었던 고봉선과 뒤를 이어 메인심방이 된 아들 고대중의 구술본이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다. 미세한 표현상의 차이나 기억의 착중에 의한 차이가 아닌 내용상으로 가장 두드러진 차

음과 같다.

(1) 남신 소천국은 알손당 고부니므를에서 솟아나고 여신 백줏도는 서울 남산(강남천자국)에서 솟아난다.

(2) 백줏도가 제주도로 찾아와 두 신이 부부가 되어 아들 8, 딸 28명을 낳는다.

(3) 아이들을 먹여 살리려면 농사를 지어야 한다면서 백줏도가 소천국에게 밭을 갈게 하지만 밭 갈던 소와 이웃 소까지 잡아먹는다.

(4) 이로 인해 부부싸움을 한 후 살림을 나누어 백줏도는 손당머리에, 소천국은 알손당에 좌정한다.

(5) 큰 아들은 거멸 문곡성, 둘째는 대정 광정당, 셋째는 정의 시선당, 넷째는 성안 내왓당, 다섯째는 갯머리 명동소천국, 여섯째는 다리 교련 앞, 일곱째는 정의 토산, 여덟째는 김녕 궤노기에 좌정한다.

<송당본풀이>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일찍이 현용준이 적절히 지적했듯이 “남신 소천국은 地神的 狩獵神的 성격을 띠고, 여신 백줏도가 農神的인 성격을 띤다.”<sup>6)</sup>는 점이다. 이상문 본을 보면 소천국은 총으로 사냥을 하고 생식을 하면서 가죽옷을 입고 살아가는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 그에 비해 백줏도(또는 백주할망)는 소천국에게 자식들을 키우려면 농사가 제일이라고 하면서 농경을 권유하는 모습을 연출한다. 소천국과 백줏도는 각각 수렵문화와 농경문화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이고, 당신으로 좌정하는 존재들이다.

그런데 더 주목해야 할 대목은 알손당(아랫송당)에 좌정한 소천국은

---

이는 소천국과 백주할망 사이에서 태어난 막내아들 송곡성(문곡성) 이야기의 유무이다. 송곡성 이야기가 고봉선 본에는 있지만 아들 고대중 본에는 없다. 다른 이본들도 들로 나뉜다. 이상문 본은 고봉선 본보다 훨씬 길고 서사성이 풍부한 고봉선 본 계열이고, 나머지(김오생, 임진생, 김을봉, 양기정)는 고대중 본 계열이다. 송곡성 이야기가 없는 고대중 본이 원형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문화·역사마을 만들기 북제주군 추진협의회, 『북제주군 송당리 조사보고서』, 도서출판 각, 2004, 123~40면 참조).

6) 현용준, 앞의 책, 117~8면.

토착자 혹은 선주자로 웃손당(윗송당)에 좌정한 백줏도는 외래자로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백줏도는 강남천자국 백모레밭에서 솟아나기도 하고, 왕대웃성 가림질 아래서 태어나기도 하고(이상문 본), 서울 남산 송악산에서 솟아난 임정국의 딸이기도(고봉선 본) 하다. 하지만 어떤 이본이든 백줏도는 도래자이다. <송당본풀이>는 도래자가 토착자의 문화에 비해 역사적으로 후대에 발생한 문화, 달리 말하면 이질적인 문화를 가지고 입도한 사실을 대단히 중요시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이는 <송당본풀이>가 외래자를 우위에 두는 사유방식을 지니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태도는 소천국의 출신에 대한 이본들의 차이를 통해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상당수의 이본들이 소천국을 이미 제주에 있던 토착자로 설정하고 있지만 이상문 본처럼 ‘하상천자지국’에서 태어나 가난을 피해 영기가 좋은 제주도로 찾아왔다고 이야기하는 판본도 있다. 제주를 영기가 좋은 곳으로 미화하는 언술도 읽을 수 있지만 신격의 외부성을 중요시하는 태도도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다. 이상문 본을 중시하면 소천국은 한라산에서 총으로 사냥을 하여 생식을 하고 가죽옷을 입고 살아가는 수렵문화를 가지고 도래했고, 백줏도는 농경문화와 더불어 도래한 것이 된다.

그런데 송당계본풀이의 외부성에는 백줏도의 외부성과는 전혀 다른 국면이 더 있어 주목을 요한다. 앞서 언급했던 <세화본향당본풀이>가 그런 경우이다. 이달춘 본<sup>7)</sup>을 기준으로 고대중 본<sup>8)</sup> 등을 참조하여 서사단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천자또는 한로영산(漢拏靈山) 지질계 백록담에서 솟아난다.
- (2) 일곱 살이 되자 천자문 사서삼경을 통달하고, 열다섯 살에는 삼천장 벼루에 일천 장의 먹을 갈아 천지간의 문서를 담당한다.

7) 현용준·현승환 역주, 『제주도 무가』, 고려대민족문화연구원, 1996, 342~361면.

8)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388~408면 참조.

(3) 옥황의 명을 받아 상세화리 손드랑마루에 좌정하여 영등대제, 마불림대제, 시만국대제를 받는다.

(4) 서울 남산 서대문 밖 가는 대밭에서 솟아난 임정국 따님아가가 일곱 살에 부모 눈 밖에 나 용왕국으로 쫓겨난다.

(5) 용왕국 외삼촌들이 주술을 가르쳐주고, 청백흑황록 주술주머니를 준다.

(6) 용왕문을 열고 부모님을 상면했지만 다시 쫓겨나자 열다섯 살 백주는 외조부가 사는 제주로 떠난다.

(7) 중도에 백주를 여자라고 무시하는 삼(일)천 선비를 주술로 제압하고 제주 조천으로 들어온다.

(8) 조천리 당신 등의 인도를 받아 천자또를 찾아가는 길에 허선장의 따님아가 집에 머물면서 복을 준다.

(9) 백록담 오르는 길에 천자의 집사라는 포수 소천국을 만났는데 손목을 잡아 팔을 자른다.

(10) 백주는 천자또를 만나 음식과 재주로 자손임을 확인받고, 소천국은 겁탈을 하려한 죄로 천자또로부터 세화리 출입금지의 벌을 받는다.

(11) 백주가 단골들에게 일곱 주머니로 풍운조화를 주고 천자또와 더불어 영등대제, 마불림대제, 시만국대제를 받는다.

(12) 금상님은 서울 남산 아양동출에서 솟아났는데 구척장신에 천하명장이었다.

(13) 금상이 남산에서 밤낮으로 흥함을 주자 역적을 잡으라는 방이 붙고, 팔도명장이 모여들자 금상이 스스로 잡힌다.

(14) 임금은 금상을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 없었고, 금상은 스스로 백만 군사를 거느리고 제주로 천정배필 백주를 찾아 떠난다.

(15) 술도 떡도 밥도 돼지도 먹는다는 금상의 말을 듣고 천자또가 물리치자 백주가 먹던 음식을 참고 배필을 맺어보자며 부른다.

(16) 백일 넘어 참은 금상이 죽을 지경이 되자 백주는 따로 상을 받아 금상을 살리자고 천자또에게 청원한다.

(17) 천자또와 백주가 따로 한 상, 금상이 돼지 잡아 따로 한 상 받아 제를 지내고 함께 좌정한다.



위에 요약된 서사단락에서 볼 수 있듯이 <세화본향당본풀이>는 ‘천자또본풀이[(1)~(3)]’, ‘백줏도본풀이[(4)~(11)]’, ‘금상님본풀이[(12)~(17)]’의 연속으로 이뤄져 있다. 백주와 금상의 만남이 서사의 핵심이어서 천자또본풀이 부분은 소략하다. 그러나 천자또는 혈통적으로 백주의 외조부로 되어 있다. 무가의 표면에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천자또의 딸이 서울 임정승에게 시집가 낳은 딸이 백주가 되는 것이다. <송당본풀이>에서는 부모가 드러나 있지 않거나, 천자또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백주는 제주와는 무관한 외래자였는데 여기에서는 백주의 혈통이 분명하다. 백주를 순수한 도래자가 아니라 토착자 천자또의 혈통에 편입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는 형식적으로는 <송당본풀이>의 모방이다. <송당본풀이>에서는 소천국이 토착자이고 백줏도는 외래자이다. 송당계본풀이인 <세화본향당본풀이>는 <송당본풀이>의 남녀 신격의 결합 형식을 가져와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백주는 소천국의 전례를 따라, 본래 외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토착신격인 천자또의 외손녀로 입적하는 방식으로 토착성을 확보한 것이다. 이 형식적 반복의 조종자는 서사 원리에 따라 따져보면 금상이다. 금상이 확실한 외부자이기 때문에 ‘내부와 외부의 결합과 분리’라는 송당계본풀이의 신화 구성 원리에 따라 그 짝이 되는 백줏도는 내부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또 동시에 금상이 배필을 찾아 도래해야 하기 때문에 백주는 외손녀의 자격으로 제주에 입도하더라도 배필 찾기가 아닌 다른 명분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송당본풀이>의 전례에 따라 곡물을 지참한 농경문화의 표상으로 도래할 수도 없었다. <송당본풀이>와는 달리, 소천국과의 적대성이 이미 전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백주는 일곱 살에 부모의 미움을 살 아무런 서사내적 이유가 없는데도 미움을 사 제주로 쫓겨 온다. 그리고는 마치 금상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처럼 외조부인 천자또와 함께 손드랑마루에 좌정하는 것이다.

이런 당신화 형성의 형식적 특성은 당신을 모시던 집단의 사회적 성

격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당신화는 당을 중심으로 설립된 마을의 집단 의식을 드러낸다. 세화리의 설촌(設村) 유래가 분명한 것은 아니지만 세화리가 송당리보다 나중에 형성된 것은 분명하다.<sup>9)</sup> 이는 제주에 들어온 금상이 상세화리 손드랑마루에서 외손녀와 함께 좌정해 있는 천자또에게 명함을 드리는 행위에서도 상징적으로 드러난다. 이는 선주 신격에게 후대 신격이 예를 갖추는 행위이다. 이런 신격들의 관계는 송당리와 세화리의 혼인관계와도 무관치 않을 것이다. 송당리 주민들은 세화리 등지에서 신부를 맞아들였지만 소천국 당이 있는 덕천리에서 신부를 맞이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었다고 하는데<sup>10)</sup> 이는 <세화본향당본풀이>의 ‘금상-백주-소천국’의 관계와 일치한다. 금상과 백주의 혼인관계는 송당본향당보다 후대에 만들어진 세화본향당의 설립 주체들이 본래부터 자신들이 모시던 금상을 중심으로 먼저 세워져 있던 마을인 송당리, 제주 신화의 ‘불회공’인 송당의 당신 백जू도를 모셔와 ‘가지가르기’<sup>11)</sup>를 하면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세화본향당본풀이>의 중심에 있는 금상의 성격이다. 금상은 도래의 형식적 모델로 삼았던 <송당본풀이>의 백주와 전혀 다른 안면을 가지고 있다.

금상님이 남산봉에 올라서서 궁궐 안에 밤에는 연화(煙火)로 흉험(凶險)을 주고 낮에는 연불로 흥함을 주고 하니 상감님도 걱정하고 만조 대신이 걱정을 하되 태사관을 불러 별자리를 보라 하니 남산봉에 역적이 될 만한 천하명장이 났습니다. ... 금상님은 서울 동작강을 내뛰어 전신(戰船) 한 척이 있거늘 당신 혼자 배를 내리고 혼자 양 돛대를 올리고

9) 송당은 약 900년 전 제주 고씨와 송씨가, 세화리는 600여 년 전 제주 고씨가 들어와 살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한다(오창명, 『제주도 마을 이름 연구』, 탐라문화연구원, 2004). 그러나 신화는 이보다 훨씬 오래된 내력을 반영하고 있다.

10) 『북제주군 송당리 조사보고서』, 147면.

11) 제주에서는 기존 신당을 전례로 삼아 그 신당의 신체를 모셔다가 새 신당을 건립하는 일을 ‘가지가르기’라고 한다. 이 ‘가지가르기’ 때 기존의 본풀이를 모델로 삼아 새로운 본풀이가 만들어진다.

산호, 양식을 가득 싣고서 백만 군사를 거느리고 피난처로 나간다.(이달  
춘 본)

앞서 언급했듯이 금상은 서울 남산 아양동출에서 솟아난 거인으로, 무쇠투구에 무쇠신발을 신고 갑옷에 언월도를 빗기 찬 설화 속 민중영웅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그런 영웅이 남산에 올라가 궁궐을 굽어보며 ‘밤낮으로 불과 연기를 피워대는’ 장면은 민란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하다. 또 발로 밟아도 돌로 쳐도, 무쇠 방에 가둬놓고 석 달 열흘 불을 때도 죽일 수 없는 천하무적이 영웅이다. 이런 금상이 스스로 백만 군사를 거느리고 제주도로 들어간다. 금상은 민중영웅, 역적, 장수 등 반국가적 또는 군사(전사)적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이런 이미지는 조선 시대에 들어와 절도정배지가 된 뒤, 너무 많은 유배인으로 말미암아 말이 번식하지 못할 정도<sup>12)</sup>가 된 제주도의 내력과 무관치 않다고 생각한다. <송당본풀이>의 백주는 곡물을 소지한 농경문화의 표상, 굳이 영웅이라고 해도 문화영웅의 표상으로 도래했지만 <세화본향당본풀이>의 금상은 군사문화, 전쟁영웅의 표상으로 제주에 도래한다.

금상의 이런 이미지는 송당계본풀이인 <케네깃당본풀이>에서도 반복된다. <케네깃당본풀이>는 구좌읍 김녕리에 있는 신당의 당신인 케네깃도(케네깃한집)의 신화인데 케네깃도는 <송당본풀이>의 주인공인 소천국과 백जू도의 여섯 짝 아들이다. 부모가 살림은 분산한 후에 태어난 케네깃도는 세 살 때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찾아갔다가 아버지의 수염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짓두드리는 무례를 범한 덕에 집에서, 아니 제주에서 쫓겨난다. 이때 부인에게 살림을 분산 당했지만 그래도 소천국은 당당하게 말한다.

12) 장선영, 「조선시기 유형과 절도정배의 추이」, 『지방사와 지방문화』 4권 2호, 역사문화학회, 2001, 182면 참조.

이 자식 뻔 때에도 일리 글러서 살림이 분산되더니 태어나도 이런 나쁜 행동을 하니 죽어야 하되 차마 죽일 수는 없으니 동해바다에 띄워 버려라.<sup>13)</sup>

쫓겨난 케네깃도는 용왕국에 가서 용왕의 막내딸을 얻은 후 강남천 자국으로 들어가 북적(北狄)의 반란을 물리치는 장수가 되는데 무쇠투구에 갑옷을 입고 언월도에 창검을 들고 억만 대병을 거느리고 전장에 나서는 케네깃도의 모습은 금상과 흡사하다. 적을 물리친 전공으로 만호후에 봉하겠다는 천자의 상을 거부하고 조선국 제주도로 귀환하는데 귀환의 형상 역시 금상과 방불하다. ‘전선에 양식을 가득 싣고 백만 군사를 대동한’ 형상인데 상륙해서는 천지가 흔들릴 정도로 ‘방포일성(放砲一聲)을 지른다.’<sup>14)</sup> 대군을 거느리고 대포를 쏘며 입도하는 케네깃도 역시 군사문화, 전쟁영웅의 표상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 귀환은 부모가 두려워 도망치다 죽을 정도로<sup>15)</sup> 공포스러운 귀환이다. 따라서 이를 두고 영웅의 위세를 강조하기 위해 만들어진 교묘한 수사학<sup>16)</sup>이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거기에는 수사 이상의 표상이 실려 있다. 그것은 부모가 지닌 표상과는 전혀 종류가 다른 표상이다.

물론 케네깃도는 제주에서 태어난 인물이라는 점에서 형식적으로는 내부자이다. 그러나 그는 내부에서 배척당해 외부성을 획득한 존재이다. <송당본풀이>의 소천국과 백जू도가 생산양식과 결부된 식성 때문

13) 현용준·현승환 역주, 앞의 책, 321면.

14) 위의 책, 327, 329면 참조.

15)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방포일성을 크게 지르며 여섯째아들이 들어오니, 아버지는 무서워서 알송당 고부니마루로 도망가 죽어 당신으로 좌정하고, 어머니는 공작머리를 짊어지고 겁이 나 도망치다가 웃송당 당오름에 가 죽어 당신으로 좌정하여 정월 열사흘날 대체일을 받아 먹게 됩니다.”(현용준·현승환 역주, 앞의 책, 329면).

16) 김진하, 「송당 신화의 분화와 새로운 영웅 문곡성의 탄생」, 『탐라문화』 30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7, 20면.

에 분리되었다면 <세화본향당본풀이>의 소천국과 백주는 겁탈이 환기하는 폭력에 의해 적대자가 되는데 <케네깃당본풀이>의 케네깃도는 아버지의 수염을 건드리는 행위로 상징되는 권위에 대한 도전 때문에 적대자가 된다. 말하자면 <세화본향당본풀이>와 <케네깃당본풀이>는 송당계 본풀이이기는 하지만 <송당본풀이>와는 다른 사회문화적 맥락이 개입되어 형성된 것이다. 이런 면에서 <세화본향당본풀이>와 <케네깃당본풀이>는 동례를 형성하고 있고, 따라서 케네깃도를 금상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케네깃도는 아버지로 표상되는 사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존재이고 그런 점에서는 서울 남산 출신의 금상과 유사하다. 케네깃도는 제주 바깥으로 축출됨으로써 금상과 동일한 외부성을 획득한 인물이자 신격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세화본향당과 케네깃당을 중심으로 형성된 마을의 설촌 시기나 집단의 유래는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이 당들은 송당보다는 후대에 이룩된 당이고, 문화적 성격이 전혀 다른, 다시 말해 방포일성의 힘을 중시하는 군사문화를 배경으로 당인 것만은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수렵문화와 농경문화의 결합과 분리, 수렵·농경문화를 가진 부모세대와 군사문화를 가진 자식 세대의 대립 등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이 송당계 당신화의 주요한 특징인데 이를 외부성이란 시각에서 보면 이 질적인 두 개의 외부성이 함께 드러나는 점이 주목된다. 앞에서 살폈듯이 하나가 백궂도로 표상되는 농경문화라는 외부성이라면 다른 하나는 금상이나 케네깃도로 표상되는 군사문화, 또는 전쟁문화라는 외부성이다. 이 이중의 외부성이야말로 송당계 본풀이, 나아가 제주 무속신화의 요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이중의 외부성이 ‘여성-백궂도’, ‘남성-소천국 혹은 금상’의 형식으로 젠더 문제와 얽혀 있어 더 문제적이다. 이중의 외부성과 젠더의 관계가 해명되어야 송당계 본풀이의 증충화된 신화적 의미가 풀릴 수 있다는 뜻이다. 젠더의 관점을 들고 송당계 본풀이 속으로 다시 들어가 보자.

### 3. 이중의 외부성과 젠더의 얽힘

<송당본풀이>의 백주는 농경문화와 결합된 여성 도래자이고, 백주의 짝이 되는 소천국은 수렵문화와 결합된 남성 토착자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 동시에 소천국은 육식, 백주는 반육식<sup>17)</sup>의 식성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런 식의 대립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송당계본풀이로 가면 여신의 토착성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고, 여신이 육식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제주 신화의 뿌리인 <송당본풀이>가 서사 내에 왜 여신-도래-반육식, 남신-토착-육식과 같은 식의 젠더 배치를 구축했는가 하는 것이다.

일찍이 문화사학과(the culture-historical school)의 관점에서 종교를 연구했던 W. 슈미트는 『신 개념의 기원 *The Origin of the Idea of God*』에서 원시 사회의 세 가지 기본 유형을 제시한 바 있다. 슈미트의 연구에 따르면 첫 번째 유형은 민족학에서 말하는 가장 단순한 사회로 낮은 수준의 수렵, 어로, 채집 생활을 하는데 이런 사회 환경에서는 강력한 가부장적 혹은 모권적 특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사회에서는 양성 사이의 본질적 평등이 강조된다. 두 번째 유형의 사회는 규모가 크고 토테미즘적 성격을 지닌 수렵 사회인데 이런 사회에서는 씨족 조직과 연령 집단 그리고 부족의 제의와 신화 전통이 정교하게 발전되어 있고, 상징적으로 분화된 공동체의 종교적·정치적 영역에서 남성의 역할과 권위가 상당히 강조된다. 세 번째 유형의 사회는 주요한 식량 자원이 식물인 곳에서 등장하는데 이 사회에서 여성들은 야채와 채소의 채집만이 아니라 재배가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땅을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아이의 출산만이 아니라 땅의 소유자, 식량의 주된 생산자가 되어 경제적·사회적 힘과 위신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출현한 사회가 모권제 사회이다.<sup>18)</sup> 역사적으로 존재

17) 백주는 곡물을 주로 먹는 존재이기에 '미식(채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었으나 육식에 대한 거부를 강조하기 위해 '반육식'으로 표현했다.

했던 다양한 원시사회에 관한 W. 슈미트의 이 같은 문화인류학적 분석의 결과는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송당계본풀이의 외부자와 젠더의 얽힘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듯하다.

<송당본풀이>가 묘사하는 소천국은 사냥을 하여 가죽옷을 만들어 입고, 고기를 생식하는 인물이다. 백주와 결혼한 후 살림살이를 위해 백주가 농사를 지으라고 요구했지만 백주의 말을 무시하고 게으름을 피우는 인물이고, 나중에는 농사의 밑천인 소까지 잡아먹는 반(反)농경적인 남성이다. 그렇다면 소천국은 슈미트가 제시한 첫 번째, 두 번째 유형의 사회 형태 가운데 어느 쪽 사회의 남성일까? 소천국의 제반 행위가 수렵문화의 특징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당연히 제 2유형의 사회에 속하는 남성으로 봐야 할 것이다. 고고학적 자료를 참조하면 고산리 유적 등에서 석촉이나 창끝과 같은 수렵 도구들이 발굴된 바 있고, 사냥과 어렵과 농경이라는 복합적인 생산 형태가 조선시대까지도 지속되었던 것이 사실이어서 제주에 수렵문화가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슈미트가 말한 수렵 중심으로 씨족 조직이나 연령 집단이 존재했던 흔적이나 토테미즘의 자취는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길이 없다. 하지만 신화 역시 하나의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다면 신화 속 소천국의 여러 행위는 남성 중심적 수렵문화를 응축하고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렇다면 백주는 어떠한가? 농경문화를 가지고 도래한 백주는 슈미트가 말한 제 3의 사회 유형에 가까운 집단의 여성이고, 동시에 여신이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 경우 슈미트의 세 번째 사회 유형과 전적으로 동일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모권제(matrarchy)<sup>19)</sup> 사회 형태의 출현에 대한 슈미트의 설득력 있는 논의

18) 조지프 캄벨, 이진구 옮김, 『원시신화』, 까치, 2003, 366~367면.

19) 모권제란 여성이 정치적 권력까지를 지닌 제도로 19세기에 요한 야코프 바흐오펜이 『모권론』(1861)이라는 저서를 통해 주장한 것이다.

에도 불구하고, 또 최근의 고(古)유럽 모권문화의 실체에 대한 마리아 짐부타스의 강력한 주장<sup>20)</sup>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역사적 단계로 일반화하기는 아직 힘들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성이 재산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혈통이 모계를 따라 계승되는 모계제(matriliney)는 동아시아에서도 널리 확인되는 사회 형태이다. 그리고 모계사회는, 리안 아이슬리의 견해처럼 신석기 농업혁명기의 주된 사회 형태였고, 이 사회에는 양성간의 평등이 보편적인 규범이었으며 모신(母神) 신앙이 신앙의 중심에 있었다.<sup>21)</sup> 따라서 농경문화와 관련된 모권제를 모계제로 수정해서 백주의 농경문화를 이해하는 쪽이 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송당본풀이>의 백주는 바로 모계사회의 여성(여신)이었기 때문에 가정 내부에서 자신이 지닌 권위를 앞세워 소천국에게 노동을 요구했던 것이고,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당당히 살림을 분산하자고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두 남녀의 결합과 분리에는 토착적 수렵문화와 외래적 농경문화라는 이질적인 문화 사이의 갈등이 나타나 있고, 이는 실제로 한반도 등지에서 농경문화를 가지도 입도한 세력과<sup>22)</sup> 기존 세력 사이의 갈등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동시에 외래문화가 문화적으로 우월하고, 그 문화가 여성중심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초래된 갈등과 분리로 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송당본풀이>에 나타난 백주의 형상에는 남성지배의 흔적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세화본향당본풀이>를 참조하면 백주는 오히려 소천국이 손목을 잡자 손목을 잘라버리는 강인한 전사적 면모까지 연출하고 있다.

20) Marijaa Gimbutas, *The Language of GODDESS*, Thames & Hudson Inc., 1989.

21) 와카무와 미도리, 김원식 옮김, 『전쟁과 젠더-사람은 왜 전쟁을 하는가』, 알마, 2007, 49면.

22) 역사학계에서는 기원전 600년경부터 형성된 제주도 상모리 유적에서 발견되는 무문토기 집단이 한반도에서 도래한 집단인데 이들이 농경문화를 가지고 입도했을 것으로 본다(이영권, 『새로 쓰는 제주사』, 휴머니스트, 2005, 30~31면 참조). <송당본풀이>의 백주가 이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백주는 분명 이런 농경문화를 지닌 도래인들의 신앙과 무관한 존재가 아닐 것이다.



이 역시 백주가 육체화하고 있는 문화의 여성중심적 성격에 대한 하나의 방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백죽도와 소천국의 평등한 관계가 <세화본향당본풀이>나 <케네깃당본풀이>에서는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변모된다. <세화본향당본풀이>의 소천국은 자신을 천자또의 거행집사라고 소개하면서 사냥꾼의 복색을 서울 양반 복색으로 갈아입고 백주를 속이려든다. 이 속임수의 최종목적은 “내 자손이 오는데 겁탈하러 하였으니 꾀뺀하다”(이달춘 본)라는 천자또의 말을 참조하면 겁탈에 있었다. <케네깃당본풀이>의 소천국은 살림 분산을 당한 뒤 세 살 난 케네깃도를 안고 찾아온 백주에게 버릇없는 자식을 바다에 버리라고 ‘명령’한다. 물론 소천국은, 앞서 언급했듯이, 겁탈하려고 백주의 손목을 잡다가 손목이 잘리는 횡액을 당하고, 노동을 거부하다가 백주에게 이혼을 당하기는 하지만 남성지배 사회의 남성이 지닌 권위와 폭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한다. 큰소리 못하고 살림을 분산 당하던 <송당본풀이>의 소천국과는 사뭇 다른 소천국이 된 것이다.

소천국의 변모에 조응하여 백주 역시 새로운 주체로 재생산되는데 이 주체의 재생산 과정에 결정적 작용을 하는 존재는 소천국이 아니라 금상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금상은 처음에는 백주와 결연을 맺을 수가 없었다. 입도하여 세화리 손드랑마루에 가서 천자또에게 명함을 내밀고 결혼의사를 밝혔지만 식성을 이유로 더럽다고 거부당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백주가 “저기 가는 저 장수, 나하고 천정배필이면 먹던 음식을 참고 천정배필을 맺어보십시오.”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한다. 그러나 금상은 자신의 본성을 바꾸지 못한다. 처음에는 자신의 식성을 부정하고 고기를 안 먹지만 피골이 상접해지자 백주의 태도가 달라진다. “소녀 하나로 해서 천하의 명장을 굶겨 죽일 수 있습니까?”라고 천자또에게 반문한다. 결국 상을 따로 받는 방식으로 함께 신당(神堂)에 함께 좌정한다.

그런데 이 좌정의 과정은 젠더의 관점에서 보자면 백주가 자신의 정

체성을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겉으로 보면 백주는 좌정의 과정에 상당히 주체적으로 개입하는 듯하다. 외할아버지에게 불합격당한 금상을 스스로 나서서 불러들이고, 자신과 배필을 맺으려면 식성을 바꾸라는 요구까지 한다. 나중에는 금상을 받아들이기 위해 천자또까지 설득한다. 이런 백주의 주체성은 <송당본풀이>의 백주의 주체성과 연속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할 이면이 있다. 그것은 남성과의 관계에서 발휘되는 백주의 주체적인 자기결정권의 향배이다. 백주는 소천국을 거부하지만 금상은 자신의 식성, 다시 말해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조정하면서까지 수용한다. 일견 모순처럼 보이는 백주의 이 같은 행위는 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필자는,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금상의 성격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금상은 앞에서 살폈듯이 군사문화, 전쟁영웅의 형상으로 입도한다. 젠더의 관점에서 보면 억만 대병을 거느리고 들어오는 금상장수의 모습은 남성중심적 국가 권력의 이미지를 외재화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권력 바로 그 자체는 아니다. 왜냐하면 금상은 중앙의 국가 권력에 대항하는 역적이기 때문이다. 남성지배문화를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국가권력에 의해 주변화된 권력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케네깃도 역시 유사한 측면이 있다. 케네깃도는, 임금이 힘으로 제압할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억만 군사를 거느리고 제주로 입도하는 금상과 마찬가지로 무공을 세운 강남천자국에서의 영광을 버리고, 조선국도 외면하고 스스로 제주로 입도한다. 금상과 케네깃도는 남성적 권력, 군사문화의 옷을 입고 있기는 하지만 중앙에 의해 타자화된 남성권력을 표상한다고 해도 좋다. 이런 두 군사영웅의 모습은 제주의 역사적 처지와 제주 문화의 정체성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백주가 자신의 식성을 유보하면서까지 금상을 받아들여려고 했던 까닭은 바로 이 같은 금상의 타자성 때문이었다. 만약 금상이 중앙의 국가 권력의 표상으로 도래했다라면 받아들였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금상이 소외된 존재, 스스로 제주를 선택한 존재였기 때문에 백주

는 자신의 주체성을 유보하면서까지 수용했던 것이다. 이는 금상이 자신의 본성을 바꾸지는 못하지만 백주의 식성에 맞추기 위해 금식을 하는 모습에서도 드러난다. 금상이 남성적 권력만을 내세우는 존재였다면 스스로 금식하는 진정성을 발휘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천하명장을 굶겨 죽일 수 없다’는 백주의 이런 목소리는 <송당본풀이>의 주체적 백주의 목소리와는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성지배문화 내의 ‘젠더에 갇힌 목소리’(gendered voice)라고 하기도 어려운 것이다.

이런 백주의 성적 주체성 문제는 탐라국 건국신화인 <삼성신화><sup>23)</sup>를 통해 다시 살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삼성신화>는 송당계 본풀이와 전승 지역이 일치할 뿐만 아니라 서사 구조의 유사성으로 인해 송당계 본풀이를 바탕으로 형성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신화>는 <세화본향당본풀이>에 나타는 백주의 변형된 정체성을 해명하는 데 유력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고기(古記)에 이르기를 태곳적에 이곳에는 사람도 생물도 없었는데 3명의 신인(神人)이 땅으로부터 솟아 나왔는바 [이 현의 주산(主山)인 한라산 북쪽 기슭에 모흥(毛興)이라는 굴이 있는데 이곳이 바로 그 때의 것이라고 한다] 만이는 양을나(良乙那), 둘째는 고을나(高乙那), 셋째는 부을나(夫乙那)라고 하였다. 세 사람은 먼 황무지에 사냥을 하여 그 가죽을 입고 그 고기를 먹고 살았다.

하루는 서 자색 봉니(封泥)로 봉인을 한 나무 상자가 물에 떠 와서 동쪽 바닷가에 와 닿은 것을 보고 곧 가서 열어 보았더니 상자 속에는 돌함과 붉은 띠에 자색 옷을 입은 사자(使者)가 따라와 있었다. 돌함을 열어 그 안에서 푸른 옷을 입은 세 명의 처녀와 각종 망아지와 송아지 및 오곡(五穀) 종자가 나왔다. 그 사자가 말하기를 “나는 일본의 사신인데

23) 삼성신화는 지배자의 헤게모니가 개입된 용어이기 때문에 올라신화라고 불러야 한다는 전경수 교수의 관점(전경수, 「올라신화의 문화전통과 탈전통」, 『탐라문화』 14호,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1994)에 동의하지만 현재 학계의 관행을 따라 이 논문에서는 삼성신화를 사용하기로 한다.

우리나라 왕이 이 세 딸을 낳고 말하기를 ‘서쪽 바다 가운데 있는 큰 산에 하나님의 아들 3명이 내려 와서 장차 나라를 이룩하고자 하나 배필(配匹)이 없다고 하면서 나에게 명령하여 이 3명의 딸을 모시고 가게 하여 이곳에 왔습니다. 당신들은 마땅히 이 3명으로 배필을 삼고 나라를 이룩하기를 바랍니다.’하고 말을 마치자마자 그 사자는 홀연히 구름을 타고 가 버렸다. 3명은 나이에 따라서 세 처녀에게 장가들고 샘물 맛이 좋고 땅이 건 곳을 택하여 활을 쏘아 땅을 점치고 살았는데 양을나(良乙那)가 사는 곳을 첫째 서울, 고을나(高乙那)가 사는 곳을 둘째 서울, 부을나(夫乙那)가 사는 곳을 셋째 서울이라고 하였으며 이 때 처음으로 오곡을 심어서 농사를 짓고 망아지와 송아지를 길러서 목축을 하여 날이 갈수록 부유해 가고 인구가 늘어 갔다.

그들의 15대 후손인 고후(高厚), 고청(高淸) 형제 3명이 배를 만들어 타고 바다를 건너 탐진(耽津)에 이르니 이때는 바로 신라가 한창 융성하는 시기였다. 이 때 신라에서는 객성(客星)이 남쪽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태사(太史)가 왕에게 말하기를 “이는 외국인이 조공을 바치러 올 징조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들이 신라왕에게 와서 보니 왕은 이것을 가사히 여겨 만이는 성주(星主) [그가 신라에 도착했을 때 성좌(星座)를 움직여 객성이 나타났으므로 성주라고 하였다] 둘째는 왕자(王子) [왕이 고청(高淸)을 자기 사타구니 밑으로 지나가게 하고 친 자식과 같이 사랑하였으므로 왕자라고 불렀다] 막내는 도내(都內)라고 부르고 신라로 올 때 처음에 탐진에 도착한 까닭에 그들이 사는 고을을 탐라(耽羅)라고 불렀으며 3명에게 각각 보개(寶蓋) 및 옷과 띠를 주어 돌려보냈다. 이때로부터 그들의 자손이 퍼져서 신라를 충심으로 받들었다. ... (『고려사』 지리지 나주목 탐라현 조)

이 기록은 『고려사』에 실린 것인데 탐라국의 건국에 관한 진술은 없다. 그보다는 셋째 단락에서 알 수 있듯이 탐라가 신라에 어떻게 복속되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탐라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한반도 지역 국가권력의 의지가 표현된 결과이다. 그러나 고득중이 지은 『고씨세보(高氏世譜)』(1450)에 들어 있는 『영주지(瀛洲誌)』를 보면 “그 후 900년이 지나 인심이 모두 고씨에게로 돌아갔으므로 고씨

로 군주를 삼고 국호를 탁라라 했다.”<sup>24)</sup>는 기록이 있어 <삼성신화>가 본래 건국신화의 모습을 지닌 것이었으리라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

그런데 이 탐라국 건국신화의 건국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세 성씨의 탄생과 결혼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송당계 본풀이와 비교해볼 때 사뭇 흥미로운 바 있다. 세 성씨는 모흥혈에서 솟아나는데 이것이 송당계 본풀이에 나타나는 소천국의 탄생 형식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케네깃당본풀이>를 보면 소천국 역시 알송당 고부니마루에서 ‘솟아나고’ 있다. 더구나 세 시조는 소천국처럼 수렵생활을 영위한다. 그 뿐만이 아니라 세 시조의 배필이 되는 세 공주는 백जू도와 마찬가지로 곡물을 지참하고 바다를 건너온다. 두 유형의 신화는 토착적 수렵문화와 외래적 농경문화의 만남이라는 동일한 형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송당계 본풀이를 바탕으로 탐라국 건국신화가 제작되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다.

그러나 양자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송당계 본풀이는 마을 곳에서 구연되는 당신화지만 <삼성신화>는 나라곳에서 구연되던 건국신화라는 점이 큰 차이이다. 당신화는 당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건국신화는 오로지 남성이 중심에 있는 신화이다. 그래서 일본국(벽랑국)의 세 공주는 나라를 세우는 데 필요한 배필이 되기 위해 바다를 건너오는 것이다. 남성지배의 제도화라고 할 수 있는 국가 건립을 향한 목적의식이 분명했기 때문에 <송당본풀이>와 달리 세 시조와 세 공주는 결합 후 분리될 수 없었다. 미식(米食)을 하지 않는다거나, 농업노동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남성과 땅 가르고 물 가르듯이 갈라설 수 없는 것이다. 세 공주는, 고조선의 웅녀나 고구려의 유화처럼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린<sup>25)</sup> 채 세 남성 시조에게, 나아가 건국 시조에게 귀속되었기 때문이다.

24) 현용준,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222면 참조.

25) 이 문제에 대해 자세한 것은 필자의 「웅녀·유화신화의 행방과 사회적 차별의 체계」(『고전문학과 여성주의적 시각』, 소명출판, 2003) 참조할 것.

<삼성신화>의 세 공주의 처지를 보면 <세화본향당본풀이>의 백주의 위상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모계사회의 여성중심적 정체성과 농경문화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백주는 <송당본풀이>에서는 자신의 주체성을 분명히 표현한다. 그러나 남성중심적 국가체제로 이행한 이후에 백주에 해당하는 여신들은 <삼성신화>의 세 공주처럼 남성건국영웅의 배필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비국가적 모계사회의 여신의 주체성은 국가적 사회의 건국시조신의 주체성과 대립적인 것이고, 이런 대립은 국가적 사회 내부에서는 중심과 주변 사이의 힘의 대립과 형식적, 내용적으로 조율된다. 다시 말하면 백주의 가부장적 남성권력에 대한 거부는 금상의 국가권력에 대한 거부와 동례를 이룬다는 것이다. 이처럼 백주와 금상은 타자성을 공유하고 있다. 필자는 이 공유된 타자성이 그들을 같은 당에 좌절하게 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백주는 이 타자성 안에서 금상을 포용했던 것이다. 이는 <삼성신화>가, 탐라의 신화임에도 불구하고, 건국신화의 일반적 결연관계를 모방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선택이었던 셈이다.

#### 4. 맺음말-논의의 확장 가능성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제주의 당신화와 건국신화에 얽혀 있는 이중의 외부성과 젠더의 문제에 주목하려는 시각은 일반신본풀이를 새롭게 읽는 데도 유용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여기서는 일반신본풀이 가운데 송당계 본풀이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세경본풀이>를 통해 시각의 확장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정도에서 논의를 마무리 짓고자 한다.

그간 농경신의 기원에 관한 신화인 <세경본풀이>는 제주신화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신화로,<sup>26)</sup> 제주 여성의 삶을 투사한 여성영웅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신화로<sup>27)</sup> 주목을 받아왔다. 나아가 근래에는 송당계 본

풀이와의 관련성 속에서 <세경본풀이>의 토착신화적 면모가 새롭게 규명되기도 했다.<sup>28)</sup>

그런데 <세경본풀이>를 꼼꼼히 들여다보면 등장인물인 ‘정수남-자청비-문도령’의 관계가 <세화본향당본풀이>의 ‘소천국-백주-금상’의 관계를 재현한 것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청비와 문도령의 봉별(逢別) 이별 이후 갑자기 등장하는 정수남은 게으른 대식가일 뿐만 아니라 소를 잡아먹고 자청비를 겁탈하려 한다는 점에서 소천국과 판박이이다. 서울 남산이 아니라 하늘옥황이라는 외부에서, 장수가 아니라 글방 도령의 형상으로 왔다는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미 그 배후에 국가적 사회의 사유가 깔려 있다는 점에서 문도령은 금상과 닮음풀이다. 자청비는 하늘옥황이라는 외부에서 곡물을 씨앗을 가지고 지상에 도래한 농경신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백주와 같다. <세경본풀이>에는 분명 자청비와 문도령의 동문수학 모티프에 보이는 외래적 원천의 작용이 있지만 신화 서사 자체를 구성하는 원동력은 송당계 본풀이에서 온 것이 분명하다.<sup>29)</sup>

그런데 젠더의 관점에서 <세경본풀이>를 볼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자청비의 경계적 위상이다. 자청비는 기자치성을 드리던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고 태어난 인물이다. 자청비는 남장을 하고 문도령과 동문수학 하면서 문도령을 비롯한 모든 남성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하는 양성구유적 캐릭터이기도 하다. 한편으로 자청비는 자신을 겁탈하려는 정수남을 청미래덩쿨로 찢어 죽이는, 그래서 부모의 집에서 쫓겨나는 주체적 여성이다. 이런 자청비가 문도령과 결혼하기 위해서 지상에서는 베를 짜고,

26) 박경신, 「제주도 무속신화의 몇 가지 특징-세경본풀이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96, 국어국문학회, 1986.

27) 좌혜경, 앞의 논문 참조.

28) 권태효, 「제주도 무속신화의 생성원천에 대한 새로운 고찰-세경본풀이에 미친 송당계본풀이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 구전신화의 세계』, 지식산업사, 2005.

29) <세경본풀이>와 송당계본풀의 관계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권태효, 앞의 논문을 참조할 것.

천상에서는 옥황상제가 제시한 갖은 시련을 희생적으로 감내한다. <세경본풀이> 전반부의 자청비와 후반부의 자청비는 주체적 여성과 남성 지배문화에 의해 주체화된 여성 사이의 모순과 충돌을 보여주는 듯하다. 그러나 이 모순과 충돌이야말로 <세경본풀이>의 신화적 본질이고, 자청비의 경계적 위상을 부각시키는 지점이라고 생각한다.

<세경본풀이>는 농경신의 기원을 이야기하는 신화지만 그 내부에 구축된 가족 형태는 이미 가부장적이다. 기지치성을 드리는 아버지, 권위를 내세워 딸을 쫓아내는 아버지가 있고, 며느리를 시험하는 시아버지-옥황이 있다. 자청비는 이 가부장적 남성지배의 경역(境域)에 던져져 있는 여성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조건 속에서 자청비는 남성지배의 경역을 가로지르며 자신의 목표를 실현해 나간다. 자청비는 배를 짜는 여성적 노동을 수행하고, 옥황으로 올라가 문도령의 배필이 되기 위해 모진 시험을 감내하는 통과례의 과정을 거치지만 이를 옥황이나 문도령의 지배에 포획되기 위한 과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자청비는 문도령과 결혼한 후 문도령의 배필로 하늘옥황에서 살지 않고, 문도령과 동문수학했던 지상으로 문도령과 더불어, 또는 혼자서 곡물을 가지고 귀환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자청비는 금상을 포용하여 함께 좌정한 <세화본향당본풀이>의 백주와 대단히 유사한 성격을 지닌 여신이다. 당신본풀이와 일반신본풀이라는 차이, 나아가 서사의 세부적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백주와 자청비를 자매 관계, 혹은 모녀 관계로 볼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논문은 이중의 외부성과 젠더라는 시각에서 송당계 본풀이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일반신본풀이의 해석에까지 적용해 보려고 한 시론적 시도였다. 시론이 일반적으로 그러하듯이 문제의식을 세부적 분석이 미처 따라가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전과는 다른 시각에서 제주 신화를 해석해보려는 시도 자체에 주목해 주길 바라며 이를 통해 제주 신화에 대한 심화된 논의들이 더 풍성해지길 기대해 본다.



논문투고일: 2009.4.15 / 심사완료일: 2009.4.25 / 게재확정일: 2009.5.15

## 참고문헌

- 문화·역사마을 만들기 북제주군 추진협의회, 『북제주군 송당리 조사보고서』, 도서출판 각, 2004.
-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 현용준·현승환 역주, 『제주도 무가』, 고려대민족문화연구원, 1996.
- 권태효, 「제주도 무속신화의 생성원천에 대한 새로운 고찰-〈세경본풀이〉에 미친 송당계본풀이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 구전신화의 세계』, 지식산업사, 2005.
- 김진하, 「송당 신화의 분화와 새로운 영웅 문곡성의 탄생」, 『탐라문화』 30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7.
- 김진하, 「송당신화의 분화방식에 대한 고찰」, 『탐라문화』 32호,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2008.
- 박경신, 「제주도 무속신화의 몇 가지 특징-‘세경본풀이’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96, 국어국문학회, 1986.
- 오창명, 『제주도 마을 이름 연구』, 탐라문화연구소, 2004.
- 이영권, 『새로 쓰는 제주사』, 휴머니스트, 2005.
- 장선영, 「조선시기 유형과 절도정배의 추이」, 『지방사와 지방문화』 4권 2호, 역사문화학회, 2001.
- 장주근, 『한국 신화의 민속학적 연구』, 집문당, 1995.
- 전경수, 「을나신화의 문화전통과 탈전통」, 『탐라문화』 14호,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1994.
- 조현설, 「옹녀·유화신화의 행방과 사회적 차별의 체계」, 『고전문학과 여성주의적 시각』, 소명출판, 2003.
- 좌혜경, 「자청비, 문화적 여성영웅에 대한 이미지」, 『한국민속학』 30집, 한국민속학회, 1998.
- 차옥승, 「제주도 신화와 제주도 여성의 삶」, 『종교연구』 49집, 한국종교학회, 2007.

현용준,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와카무와 미도리, 김원식 옮김, 『전쟁과 젠더-사람은 왜 전쟁을 하는가』, 알마, 2007.

조지프 캠벨, 이진구 옮김, 『원시신화』, 까치, 2003.

Marijaa Gimbutas, *The Language of GODDESS*, Thames & Hudson Inc., 1989.

Abstract

Two imported cultures and the gender in the mythology  
of Jeju-island

Cho, Hyun-soul

The two imported cultures and gender are the two keywords that open the mythology of Jeju-island. Songdang-bonpuri, the root of Jeju mythology has god Sochunguk and goddess Backjutto as a couple. Sochunguk is a native hunting god and Backjutto is an imported agricultural goddess. Backjutto is superior to Sochunguk in the action pattern. This states that the nature of Jeju mythology is to place the outsider at a higher position. But, an outsider other than Backjutto appears in Sehwadang-bonpuri. The outsider, Kemsang who was born in Hanyang(capital city) has an image of a rebel. He came to Jeju-island for shelter. Like this, the mythology of Jeju island got two imported cultures; agriculture and military.

However, more important matter is the tie-up of these two cultures and the gender. Backjutto and Sochunguk have equal status in their marriage. Sometimes Backjutto is rather superior. But the marriage of Backjutto and Kemsang is completely different. Backjutto of Sehwadang-bonpuri that belongs to Songdang-bonpuri lineage rejects Sochunguk, who eats meat. But, she adjusts her like and dislikes accepting Kemsang, who eats meat. This course of acceptance is the process of genderization of Backjutto. The shift of women domination to men dominated culture in Dang-god(堂神) led to the transformation of Backjutto. The characteristics of Jeju

mythology is that it shows the men-women relation in state society, non-state society and in the cultures of military and agriculture.

Key words : imported cultures, gender, Jeju mythology, hunting culture, agricultural culture, military culture, Songdang-bonpuri, Sehwadang-bonpuri